

전남 동부권

고흥만방조제 담수방류 어민피해 “국가·고흥군이 72억원 지급하라”

법원 “적법한 절차라도 피해규모 커 배상 책임” 판결

방조제 건설에 따른 담수방류로 어민들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고흥군 신흥·용담어촌계 등 10개 어촌계와 어민 2명이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어촌계에 7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수호의 조성과 담수방류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라든가, 피해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고 지금까지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던 만큼 국

가와 고흥군이 어민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태풍·호우에 따른 방류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없었고, 피해를 미리 막으려면 과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했던 만큼 자연의 힘에 의한 피해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해 손해배상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어민들은 “고흥만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흘러나온 담수로 인한 조류, 유속, 염분농도의 변화로 주변 어장의 키조개·피조개 등 생산량이 평균 20% 감소했다”면서 지난 2007년 11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중도방죽 산책로 해바라기 만개

최근 보성군 벌교읍 중도방죽 산책로 주변에 해바라기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보성군은 올해 중도방죽 유희지 공간 2000㎡에 해바라기 단지를 조성했다. <보성군 제공>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98곳 적발

품관원 순천·광양사무소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 쇠고기와 쌀 등 수입산 농식품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사무소(소장 장택준)는 올 상반기에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관내 248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9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순천·광양사무소는 위반업소중 수입산 농식품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38개소는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60개소는 1888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양곡표시 위반 8건, 쇠고기 이력표시 위반 6건을 적발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관내 갖김치 업소 가운데 갖

김치의 양념육인 수입산 고추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국산과 중국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 9개소는 순천지청에 송치 완료했다. 단속 업체별로는 음식점 46건(46.9%), 유통업체 중 농축산물 19건(19.4%), 농산 가공품 31건(31.7%), 위반 정도가 심한 노점상 등 2건(2.0%)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와 쌀,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이 69건(70.4%)을 적발했다. 순천·광양사무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고(061-742-6060·1588-8112)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j@

순천시 저소득자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순천시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저소득자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5년 이내 신흥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모집 공고

일인 현재 순천시 거주자에 한한다. 입주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 소유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10년까지 재임대해 거주 가능하다. 문의(061-749-3472)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j@

구례군·섬진강 환경어족보존회 ‘동남참깨’ 방류

구례군과 섬진강 환경어족보존회(회장 이현창)는 수산자원 증식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12일 섬진강 서시천·효곡천 등 3개 지천에 토종인 ‘동남참깨’ 1만4700미를 방류했다. 방류지점은 참깨 서식지로 유명한 섬진강 지천이다. 군은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일환으로 전남도 내수면시협장에서 생산한 우수한 형질의 참깨를 매

입·방류했다. 군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도모는 물론 내수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깨 방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은 “참깨 사라져가는 토종 어종인 참깨 방류로 과거의 섬진강 참깨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광양항 국제적 종합물류기지 도약

동측 이어 서측 배후단지 조성공사 완료

광양항의 동서 배후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돼 국제적인 종합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은 12일 단지 내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2공구(86만㎡) 부지 조성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는 3761억원

이 들어간 국책사업으로 지난 2007년 12월 첫 삽을 뜨고 나서 지난해 11월 제 1공구(107만㎡)를 준공한데 이어 이번엔 2공구까지 공사를 마쳤다. 정부는 광양항 배후단지를 컨테이너 항만기능과 연계된 국제적 종합 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총 7035억원을 들여 동서 배후단지를 조성기로

하고 동측 배후단지(195만㎡)는 지난 2008년 공사를 마쳤다.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2공구 준공으로 환적·집배송·보관 등 물류 기능과 부가서비스를 위한 화물 가공, 조립기능이 제고돼 광양항이 국제적인 종합물류단지로 도약하게 됐다”며 “연간 컨테이너 50만 TEU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전 북

오늘부터 열흘간 김제 ‘하소백련(白蓮) 축제’



‘제11회 하소백련(白蓮) 축제’가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김제시 청하면 청운사와 하소백련지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만남 그리고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공연 13회 ▲전시 10개 사업 ▲체험 7개 분야 ▲민속놀이 6개 사업으로 구성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으로 마련된다. 축제 기간동안 전국 초·중·고 학생

백련장 대회인 ‘새만금 문화제’를 비롯해 ‘클나무 오케스트라’ 연주, 관광객 노래자랑 등이 펼쳐진다. 김남권 축제제전 위원장은 “올해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하소 백련축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 하소 백련지는 9만9000여㎡ 규모로 6월말에서 8월말까지 하얀 연꽃이 핀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88억 규모 서남권 광역 공설 화장시설

정읍 감곡면 통석리 일대 결정

희장로 3기·자연장지·추모공원 등 2014년 6월 완공

정읍시와 고창·부안군 서남권 3개 시·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서남권 광역 공설 화장시설 건립부지’로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원이 선정됐다. 김성기 정읍시장, 이강수 고창군수, 김호수 부안군수는 12일 정읍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3개 시·군을 대상으로 4차례 공개모집한 결과 최종 응모지로 정읍 감곡면과 태인면이 신청, 경합을 벌였으나 현지실사 및 서류심사를 거

쳐 감곡면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3개 시·군 9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10개의 심사항목 가운데 주거안정과 주변조화, 접근성 및 개발용이, 부지매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감곡면 통석리 일대를 건립부지로 확정했다. 3개 지자체는 앞으로 전북도 투·융자 심사,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매입, 토목건축 설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공설 화장시설은 2014년 6월에 완공돼 운영될 전망이다. 공설 화장시설 건립에는 모두 88억원이 투입되고, 화장로 3기(2000㎡)와 자연장지, 봉안시설, 추모공원, 휴식광장 등이 들어선다. 한편 공설 화장시설이 건립되는 감곡면에는 지역주민 공동사업으로 총 70억원이, 사업부지 인근마을(반경 1km 이내)에는 30억원의 사업비가 각각 지원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

정읍 구절초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

市, 배개·차·막걸리 등 특화 상품 육성

정읍의 특산물인 구절초의 지리적 표시 등록이 추진된다. 정읍시는 시화(市花)이면서 가을 진객인 구절초를 지역특화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진행 중이다. 시는 구절초의 지리적 현황, 품질, 지리적 환경과 상품 특성, 단체 구성, 단체표장 브랜드 개발, 권리 확보와 사후 관리 등 등록 제반사항을 10월까지 특허청에 낼 예정이다. 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특허청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

정읍은 구절초를 원료로 한 배개, 차, 막걸리 등을 개발해 지역특화 상품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산내면 매죽리 옥정호 인근 구절초테마공원(22ha)에서 매년 10월 축제를 개최, 20여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와 40억원의 경제효과를 보고 있다. 한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란 상품 품질·명성·특성이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



국악 성지서 팽과리 배우는 외국인들

여수 세계박람회 참가한 18개국 정부대표들이 12일 남원시 운봉면 ‘국악의 성지’를 방문해 팽과리를 익히는 등 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단 신

도교육청 소외계층 고교생 52억 학비 지원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2분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고교생 2만3782명에게 총 52억4700여만원의 학비를 지원했다. 항목별 지원 규모는 ▲수업료 감면 33억9255만원 ▲학교운영지원비 12억9175만원 ▲입학금 81만9000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2분기 지원규모(2만2507명·43억8870만원)에 비해 1275명(5.7%), 8억5830만(19.6%) 증가한 규모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공설시장 슬로건·캐릭터 개발 추진

지난 3월 전국 최초의 현대식 점통시장으로 재탄생한 군산 공설시장의 슬로건과 캐릭터가 조만간 개발된다. 특허청 지정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기관인 ‘군산 지식재산센터’는 대형 마트와의 경쟁으로 침체되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군산 공설시장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을 벌인다. 지식재산센터는 군산공설시장의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시장 공영물품 등에 부착할 슬로건, 캐릭터를 개발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남원경찰, 절도피의자 검거 유공 표창 수여

남원경찰서(서장 방춘원)는 지난 11일 서장실에서 김경원(경영건설 대표이사)씨와 산동파출소 이창현 경사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지난 5일 남원시 이백면 회사 소유 건설자재 야적장내 전선케이블이 절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해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는데 일조했다. 이 경사는 지난 6월 112순찰 중 산동면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학생을 발견, 오토바이 출처에 대해 추궁한 끝에 절도 사실을 밝혀 검거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생활개선 고창군연합회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생활개선 고창군연합회(회장 석순덕)는 지난 11일 고창군 군립체육관에서 회원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원 화합을 위한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생활개선회 이명숙 회원이 그동안 활동을 인정

받아 생활개선 전북연합회장으로 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석순덕 회장은 “자신의 일처럼 팔을 걷고 지역리더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는 회원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